



강진 최제영



곡성 김광희



광양 김충권



담양 박종영



무안 이기성



보성 안구일



순천 김승호



순천 김종영



신안 박응식

천억송이 국화꽃의 향연

‘함평 국향대전’ 큰 인기

내달 5일까지 다양한 기획작품·분재작품 선보여



지난 20일 함평군 함평엑스포공원에서 개막한 2017 대한민국 국향대전이 성황을 이루고 있다.

14회째를 맞이한 국향대전은 나비축제와 함께 함평을 대표하는 행사다.

올해는 ‘국화향기’ 가득한 함평으로 주제로 다양한 기획작품과 수백여 점의 분재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축제장으로 진입하는 주요 도로는 물론 함평천지 곳곳이 국화로 뒤덮였다.

특히 천억송이의 국화가 76만여 m²의 함평엑스포공원을 화려하게 수놓아 정관을 이루고 있다.

각양각색의 국화가 내뿜는 짙은 향기가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물씬 풍긴다.

꽃으로 장식한, 높이 14m의 꿈나무와 희망나무가 내려다보는 중앙 광장에 들어서면 역사와 국화가 한데 어우러져 가을의 향기를 내뿜는다.

형형색색의 국화로 뒤덮인 광화문과 세종대왕상이 관광객의 시선

을 사로잡는다.

국화꽃을 두른 평화의 소녀상은 위안부 문제를 환기하고 인권과 평화의 의지를 되새기게 한다.

광화문을 중심으로 약 7000m² 면적을 뒤덮은 국화꽃들의 향연은 일상의 피로를 말끔히 씻어 준다.

축제장내 곳곳에 대형 무지개터널을 조성해 볼거리를 더욱 풍성하게 한다.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코끼리, 기린, 사슴 등 동물모형으로 만든 아기자기한 포토존은 아이들에게 인기다.

뛰어난 분재작품도 볼거리다.

돌이나 나무에 요염하게 자리 잡은 국화 분지는 보는 이의 탄성을 불러일으킨다.

한 줄기에서 1538 송이가 피는 천간작을 비롯해 대국, 복조작 등도 눈길을 끈다.

관립객들은 국화꽃이 연출한 아름다움을 담기 위해 카메리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느라 분주하다.

행사기간 동안 다양한 특별행사도 펼쳐진다.

26일 후엽소 소비촉진을 위한 전국대회가 진행됐다.

28일엔 함평 특산물인 한우와 단호박의 인지도를 높이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제7회 전국 명품 한우와 단호박 요리경연대회가 함평여자중학교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됐다.

11월 1일엔 축제장 내 열린무대에서 국향대전 시낭송회가 개최된다.

풍성한 문화예술 행사도 볼거리다.

축제장 내 위치한 함평군립미술관에서는 국향대전 특별기획전 ‘황화민절 그윽한 향기에 취하다’와 군립미술관 소장품전 ‘축제에 부쳐’가 올해 말까지 진행된다.

이밖에도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가 마련돼 관광객에게 풍성한 볼거리 제공한다.

군민이 직접 생산, 판매하는 장터도 있다.

관광객은 맛고 먹을 수 있고 농가는 소득을 올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눈을 즐겁게 하는 볼거리와 함께 먹을거리도 함께 즐길 수 있다.

국향대전이 다른 국화축제와 남다른 점은 바로 축제장을 장식하는 수백여 종의 국화꽃들을 모두 함평군이 직접 개발하고 길렀다는 것이다.

씨를 뿌리는 것부터 축제장에 옮겨 심는 것까지 일 년 내내 애정과 정성을 쏟아진다. 색깔이 탐스럽고 모양도 풍성하다.

새로운 품종의 국화꽃을 선보이기 위해 기술개발에도 박차를 가해 지금까지 분재국 10종, 혈액국 3종 등 총 13종의 품종보호권을 획득했다.

이번 2017 대한민국 국향대전은 오는 11월 5일까지 계속된다.

함평=김광춘 기자

영광군 영광읍, 지방자치박람회 견학

영광군 영광읍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26일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리는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를 견학하였다.

이번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는 전국 지방자치 우수 정

책과 먹거리, 항夭자원 등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자리로 이날 견학을 통해 영광읍 주민자치센터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전국 주민자치센터 우수사례를 보고 배우기 위해 주민자치위원회와 영광읍 직원

35여명이 참여했다.

박람회를 찾은 영광읍 주민자치위원회 및 직원 35여명은 타 시군의 우수사례 발표회를 경청하고, 주민자치 우수사례 공모에서 선정된 주민자치 센터 활성화, 지역활성화, 평생학습 분야 등 우수사례 전시관을 관람했다.

영광=서희권 기자

장성군 청년들 ‘장성의 가치를 플러스하다’

‘청년재능나눔한마당’ 개최…공연·미용서비스 등 재능 나눠

번째 열린 것으로, 장성군청소년수련관, 장성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센터, 장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 바르게살기운동본부, 장성군자부, 장성읍여성회, 장성꽃사보, 장성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김치과의원 등이 참여해 지역을 순회하며 개최하고 있다.

장성읍청년회 정철 회장은 “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어울리고 소통하며 농촌 공동체에 활기를 불어넣는 것이 재능나눔의 목적이”며 “재능을 농촌에 활용하고자 하는 단체나 개인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청년재능나눔한마당’은 장성을 청년회가 주축이 되어 지역 사회단체와 기관 등이 의기 투합해 만든 단체로 지난 6월 농립수산식품부가 공모한 ‘농촌재능나눔 지자체 활동지원사업’ 대상으로 최종 선정돼 국비 2천5백만원을 지원 받고 있다.

이 사업비는 ‘위기기정 극복캠프’ ‘옐로우카펫 설치사업’ ‘재능나눔 패키지’ 3개 사업을 추진하는데 쓰여지고 있다.

장성=반정모 기자

보성군, 농어촌민박 운영실태 전수조사 실시

내달 16일까지 민박 88개소 중점 점검

보성군은 11월 16일까지 농어촌민박 88개소의 운영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군·읍면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민박업주·주민등록 실거주여부, 신고필증 게시여부, 객실 수 조건과 운영 여부, 민박 규모 및 시설 기준 준수 여부 등 안전관리 체계

를 중점 점검한다.

농어촌민박은 본인이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을 이용해 민박업을 해야 하고 일반 숙박시설과 달리 토지이용에 제한이 없는 대신 실거주자가 연면적 230m² 미만 범위 내에서 부속 1개동까지만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보성=안구일 기자

구례군, ‘어린이 영양교육 및 식중독 예방’ 인형극 성황

어린이·교사 250명 대상 ‘체소나라 콩콩이의 건강대작전’ 공연

식중독 예방요령 및 편식예방, 싱겁게 골고루 먹기 영양 교육

인 체소나라 콩콩이의 건강대작전’ 인형극 공연을 가졌다.

전남도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공연은 올바른 손 씻기 요령을 통해 식중독 예방 및 잘못된 식습관을 개선하고 체소 씹취의 중요성을 인지함으로써 편식을 예방하자는 취지로, 이

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눈높이에 맞춰 전달하는 한편, 기념촬영을 위한 포토존, ‘꼴고루 먹어야 미로찾기’ 등의 프로그램으로 높은 호응을 얻었다.

한편 인형극 관람에 참여한 어린이집 한 교사는 “페스트푸드 등에 길들여져 편식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이번 편식예방 인형극으로 건강하고 균형 있는 식습관 형성에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구례군은 동신대 산학협력단과 함께 관내 어린이집 및 지역아동센터 등 25개소에 영양·위생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 올림픽 2018.02.09~02.25(17일간)
· 패럴림픽 2018.03.09~03.18(10일간)

PyeongChang 2018
올림픽
Paralympic Games

PyeongChang 2018
패럴림픽
Paralympic Games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